나눔의집 제보자 일부, 횡령·추행 기소

나눔의집 사태 새국면 맞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입적 이후, 나눔의집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월주 대종사의 영결식을 기점으로 일부 대권주자들이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조치가 과도하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나눔의집을 둘러싼 여러 시각들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나눔의집 운영 논란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내부제보직원 중 일부가 횡령과 강제추행,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경기광주경찰서는 최근 내부 제보직원 중 간호조무사 A씨의 보조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나눔의집 할머니 가족과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A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여성가족부 힐링카드를 다른 목석으로, 혹은 임의로 사용했다"며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다른 내부제보직원 B씨가 지난해 나눔의집에 근무했던 前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으며, 8월 13일 첫 심리가 진행됐다.

나눔의집에 게재된 경기도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당부 공문'을 무단 훼손해 문서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의집 관계자에 따르면 "B씨의 경우 이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 외에도 다른 고소건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내부제보직원 일부에 대한 혐의가 잇따라 인정되면서 나눔의집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내부제보직원들이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된 상황에서, 정작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 일부가 횡령과 추행 등으로 기소됨에 따라 순수성에 대한 의혹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대표이사 월주 대종사 원적 후
"경기도, 과도한처분"비판여론
이사 스님들 횡령 의혹 무혐의
재차 조명되면서 귀추 주목돼

여기에 이사 스님들에 대한 경기도 해임명령 및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해지면서, 나눔의집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이사 스님들에 대한 경기도 행정조치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5년간 나눔의집 법인이 시설에 지원한 후원금 합계가 2억 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내부제보직원 일부에 대한 횡령 · 추행 혐의가 잇따라 인정되면서 나눔의집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2억 원은 법인이 시설에 전출한 순수 후원금만을 합산한 금액이며, 시설 직접 후원금과 물품 후원금, 지정 후원금 지원을 비롯해 할머니들의 증언 및 활동비, 여행·간병비, 여가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5년간 후원금 사용액은 12억원 이상이다.

실제 本紙가 확보한 '5년(2015년~2019년) 간의 나눔의집 시설 운영내역서'에 따르면 시설 후원금 총액만 9억 6837만 원으로 확인됐다. 할머니들의 증언 및 활동비를 비롯한 부수비용 역시 법인 운영계좌에서 직접 지출됐다. 또다른 이사 스님은 "논란 이후 법인과 시설은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횡령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나눔의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스님은 "정부 지원과 대중 관심이 전무했던 당시부터 나눔의집은 월주 대종사를 중심으로 불교계 원력을 모아 할머니들을 보호해 왔고 세계적으로 다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침탈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평화를 추구하는 역사적 공간 자체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며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한 내부 제보자 일부
혐의 인정돼 검찰 기소 이어져
A씨 횡령의혹, 일부 기소 의견
B씨 강제추행·C씨 약식기소도

한편 나눔의집은 8월 20일 제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9월 10일 개원

8월11일 의장단 연석회의 종법 제개정안 논의 예정

총림제도 개선을 비롯한 조계종 종법 제개정안 등을 다룰 제221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9월 10일~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정문)는 8월 11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21회 중앙종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종법 제·개정을 비롯해 종단 현안에 대한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등을 안건으로 5일간 회기로 진행된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종법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종정감사특별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의 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접수는 9월 3일까지이며, 종책질의는 9월 5일 마감된다.

연석회의는 이날 중앙종회의원 연수일정도 확정했다. 연수는 10월 14일~15일 경남 부곡온천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중앙종회와 상월선원 만행결사순례단, 조계종 포교원이 공동으로 '한국불교 포교현황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된다. 또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들과 함께 부곡에서 밀양까지 국난극복을 위한 순례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상·탄탄·돈관 스님 무투표 당선

중앙선관위, 심사결과 '자격 이상 없음' 결정
은해사 후보 장적스님 '자격 없음' 최종 확정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상 스님, 돈관 스님, 탄탄 스님이 무투표 당선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8월 12일 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지상 스님(신흥사), 돈관 스님(은해사), 탄탄 스님(직능대표 포교분야)에 대해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반면 은해사 종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장적 스님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장적 스님이 직접 운영 중인 SNS 자료를 확인한 결과 종단 미등록 법인 선학원 사찰 일선사의 운영권자 또는 관리인으로 판단된다"며 "선거법 제16조, 종무원법 제6조,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2조에 의거해 은해사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해사 보궐선거는 돈관 스님과 장적 스님 두명이 입후보함에 따라 경선이 예상됐으나, 장적 스님이 자격심사 결과 후보자격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역임한 인공 대종사 원적


인공당 성욱 대종사

세수 84세, 법납 69세로
8월2일 봉원사에서 입적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공 성욱 대종사가 8월 2일 오전 11시 27분 태고종 총본산 신촌 봉원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84세, 법납 69세.

1957년 봉원사에서 남벽해 화상을 은사로, 조일파 화상을 계사로 득도한 인공 대종사는 1962년 봉원사 강원 초등과중등과를 수료했다.

1963년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종단 초대 중앙종회의원, 종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총무원부원장을 역임했다. 1998년 봉원사 제36세, 37세 주지로 취임해 봉원사의 수호에 앞장서며 종단 안정과 발전에 기틀을 다졌다. 2001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서훈 받았다.

2003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인공 대종사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크게 이바지 했다.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G-20정상회의 성공개최 기념 2010영산재'를 성공리에 봉행해 영산재가 세계인의 문화유산이자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인공 대종사의 열반송(涅槃頌)은 이와 같다.

黃面點頭我幾世/ 達磨何來東西去/ 童剪老令衲脫衣/ 汁摩踏影先代位

부처님 이후로 나는 몇 세대가 될 것이며/ 달마는 무엇 때문에 동쪽으로 왔다가 서쪽으로 갔는가 /어려서 머리 깎아 늙은 중이 이제 장삼을 벗으니/ 무엇이 그림자 밟아 성인자리 오르려나

한편, 인공 대종사의 영결식은 8월 5일 신촌 봉원사 특설 발인장에서 엄수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9월 10일까지 접수

특별부문 시상 강화

한해 동안 불교 언론문화 발전과 불교문화 창달에 앞장선 언론사 및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불교언론문화상이 제29회 후보작을 공모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진행하는 이번 불교언론문화상은 대상을 비롯해 방송(TV·라디오)과 신문, 뉴미디어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여한다.

올해는 특별부문이 강화돼 영화와 뮤지컬, 연극, 광고, 미디어교육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의 우수작품 2건이 특별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언론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로 언론인을 선정해 불교언론인상이 수여된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상금은 1000만원이며, 각 분야 최우수상은 상금 300만원, 우수상과 특별상에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불교언론인상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출품작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보도된 것으로 접수기한은 9월 10일까지다. 방송부분은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3부씩, 신문은 A3사이즈의 전면기사 5부와, PDF파일을 담은 USB 3부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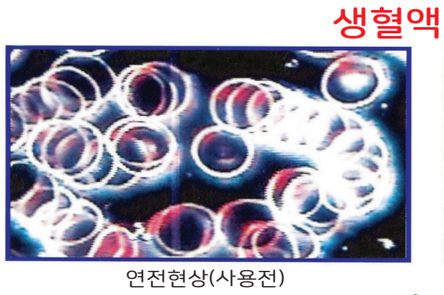
뉴미디어부분은 USB 3부와 함께 지정양식 신청서를 첨부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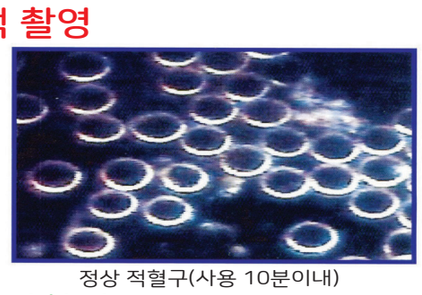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다리에 쥐 나는 것,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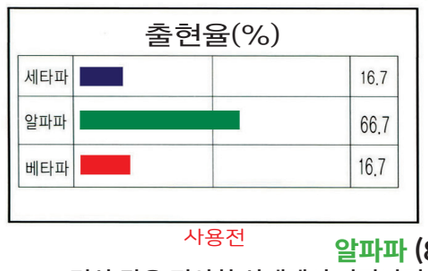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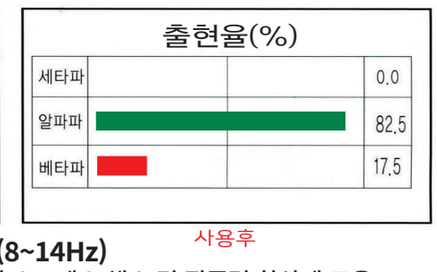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페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BLOOD MATE®로 전신(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샤워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샤워타월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짜고 털어버린 후 샤워타월에 물기 있는 BLOOD MATE®를 골고루 묻혀준 후 전신을 샤워타월로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하얀 거품이 5~7분 내에 전신에 스며들어 마르면서 전신이 붉어지며 그대로 옷을 입습니다.

BLOOD MATE®로 샤워 시마다 약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계속하면

◈ 포도상구균 99.9% 정균 감소는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을 없애주며, 일부러 때를 밀지 않아도 되며, 발뒤꿈치의 각질이 제거됩니다.
◈ 어깨와 허리, 팔 다리 쑤시고 아프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머리가 쉽게 희어지지 않습니다.(탈모 예방)
◈ 20~30분 정도 누웠다가 일어나면 사우나 한 것 같이 몸살기 있던 몸의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 혈액 정상화(손바닥이 붉어짐) ◈ 피부 보습(촉촉한 느낌)
◈ 젊은 피부로의 환원(매끄럽고 아기 피부 같은 부드러움과 희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향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순비누: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주)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삼강